430여社 참가…현대·기아차 협력사 채용박람회

내달 21일 DJ센터…27일부터 등록
작년 광주·전남지역 1000여명 채용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에서 1000여명을 채용한 '현대·기아자동차 협력사 채용박람회'가 오는 3월2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현대·기아차가 자동차산업의 고용창출과 중소 협력사의 우수 인재 확보 지원을 위해 갖는 이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리며 올해는 기존의 부품협력사뿐만이 아니라 현대·기아차의 우수 '정비협력사'와 '2, 3차 부품협력사'도 참여해 전국적으로 총 430여 개의 협력사가 참가할 예정이다.

행사에 참가하는 현대·기아차 협력사들은 모닝에서 에쿠스까지 현대·기아차 전 차종에 적용되는 부품을 개발, 생산, 정비하고 있으며 그 중 대다수는 해외 동반 진출을 통해 미국과 유럽, 중국 등 세계 전역에 해외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글로벌 '강소업체들'이다.

협력사들은 박람회에서 생산직 직원 및 고졸·대졸 사무직 직원의 채용도 진행할 계획이어서 자동차산업의 대규모 고용창출과 청년 구직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기아차는 행사 당일뿐만 아니라 채용박람회가 끝난 이후에도 미취업 구직자들을 위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한다.

취업컨설팅 전문업체 '커리어'와 연계해 박람회 이후 2개월간 전문 컨설턴트와 취업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축하고, 채용박람회 참가자는 물론 일반 구직자에게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취업컨설팅을 제공한다.

행사참가 및 현장면접의 사전등록은 27일부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hkpartner.career.co.kr)를 통해 가능하며 사전등록자에게는 박람회장 선착순 기념품 증정과 현장 추첨을 통한 최신형 접이식 자전거 증정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된다.

광주지역 기아차 협력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기아차의 세계 판매 증대와 더불어 협력사의 생산량도 증대해 채용확대의 필요성이 커졌는데, 행사를 통해 우수 인재들에게 회사를 제대로 알릴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4월 개최된 채용박람회는 전국적으로 6만 건 이상의 취업상담이 진행됐으며 현대·기아차 1차 협력업체가 연초 계획했던 1만 명을 50% 가량 웃도는 총 1만5000여 명이 채용됐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류민열 롯데백화점 광주지역장이 27일 백화점 대회의실에서 홍정희 대인시장 상인연합회회장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롯데백화점 제공〉

롯데백화점 광주점, 대인시장과 '상생협약'
상품권 사주고 경영 노하우 전수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27일 광주지역에서는 업계 처음으로 대인시장 상인연합회와 '상생협력에 관한 협약식'을 하고 재래시장 상생발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대인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불만고객 응대 기술, 위생 관리, 안전관리, 상품진열과 판매 기법 등 다양한 백화점 기법을 전수한다.

특히 상품의 과학적인 진열과 위생관리 방법, 소방과 전기안전 관련 등 그동안 재래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점으로 꼽히던 부분들은 백화점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직접 지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백화점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회의나 각종 모임을 할 때 백화점의 교육장과 회의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백화점 휴무일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 인근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이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래시장 장보기 캠페인을 펼쳐 재래시장 이용을 장려할 예정이며 재래시장 상품권도 정기적으로 구입해 임직원 포상이나 백화점 사은품으로 증정할 계획이다.

한편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난 1월말 '재래시장 상생 협력'의 지속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해 2명의 백화점 전문가들로 꾸려진 '지역 상생연구회'를 발족했다.

류민열 롯데백화점 광주지역장은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다"며 "앞으로 재래시장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협력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신세계(총괄임원 유신열)가 27일 광주신세계백화점에서 (사)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와 '무등산 국립공원 공유화 및 생태계 보존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신세계 무등산 공유화사업 지원

보호협의회와 업무협약

㈜광주신세계가 무등산 생태계 보존과 공유화 사업을 지원한다.

㈜광주신세계는 27일 (사)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와 함께 '무등산 국립공원의 공유화 및 생태계 보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광주신세계 유신열 총괄임원은 "무등산 국립공원의 모범적인 생태 환경 조성을 위해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와의 공동 연구 및 사업 추진에 앞장서겠다"며 "무등산의 문화적 가치를 증진시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3월1일부터 7일까지 광주신세계는 1층 광장에서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기념 행사'를 진행한다. '무등산 풍경소리'의 축하 공연과 함께 대규모 '아웃도어 바자회' 등이 열린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2월 광주·전남 소비심리 소폭 호전

소비자동향조사…심리지수 99, 전달보다 1P 상승

2월 중 광주·전남 지역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심리가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다.

27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광주·전남 지역 도시의 600가구를 대상으로 '2013년 2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동향조사'를 벌인 결과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는 99로 전달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2월 중 현재의 경기상황을 판단하는 현재경기판단 CSI(소비자동향지수)는 68, 6개월 후의 경제상황을 예상하는 향후경기전망CSI는 87로 각각 전월대비 4포인트, 1포인트 올랐지만 여전히 기준치 100에는 크게 못 미쳤다.

현재생활형편CSI는 89, 6개월 후의 생활형편전망CSI는 95로 전월대비 각각 2포인트와 1포인트 상승했다.

또 6개월 후의 가계수입전망CSI(97→96)와 소비지출전망CSI(109→108)은 각각 1포인트 하락했다.

이외에 취업기회전망CSI(87)은 전월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 1년 후의 소비자물가수준을 예상하는 소비자물가수준전망CSI(141)는 전월대비 1포인트 하락했으며 6개월 후의 금리수준전망CSI(85)는 3포인트 하락했다.

주택가격전망CSI는 93으로 전월대비 동일했으며 1년 후 임금수준전망CSI는 116으로 임금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CSI는 기준치 100보다 크면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기대심리가 과거(2003~2012년) 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작년 신용카드 이용실적 금융위기후 최저

하루 2044만건, 1조5350억원…전년비 3.6% 증가 그쳐

가계부채와 경기침체로 민간소비가 부진하며 지난해 신용카드 이용실적 증가세가 주춤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12년 중 지급결제 동향'을 보면 지난해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하루 2044만건, 1조5350억원로 나타났다. 금액기준으로 전년도보다 3.6% 늘어나는데 그쳤다.

신용카드 결제액 증가율은 금융위기 당시 12.7%(2008년)에서 2.5%(2009년)로 크게 낮아졌다가 2010년 5.8%, 2011년 9.5%로 회복했다. 그러나 지난해 극심한 소비부진에 증가세가 다시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으로 확 꺾였다.

특히 지난해는 주유소(16.1%→4.2%), 할인점(11.0%→2.9%), 백화점(7.3%→1.0%), 학원(7.3%→-6.5%) 등의 신용카드 매출 증가세가 크게 줄었다.

한은은 "민간소비 증가율이 지난해 1.8%로 2011년(2.3%)이나 2010년(4.4%)보다 저조해 이용금액 증가세가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은 하루평균 2070억원으로 전년도 2270억원보다 8.6% 줄었다. 건당 결제금액도 5만3000원으로 전년도 5만5000원보다 2000원 감소하며 소액화가 계속됐다. 신용카드 발급장수는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2012년 말 현재 신용카드 발급장수는 총 1억1623만장(4.8%↓)으로 국민 1인당 2.3장꼴이었다. 2011년 말 2.5장보다 다소 적어졌다. 경제활동인구 1인당 장수도 4.9장에서 4.5장이 됐다.

체크카드 이용실적은 지난해 하루 평균 681만건, 2천271억원으로 금액기준 19.3% 증가했다. 이 역시 2010년 42.0%, 2011년 34.1%의 높은 증가세에서 크게 주저앉았다.

체크카드의 건당 결제 금액은 3만3000원으로 전년도(3만7000원)보다 줄었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금리 (국고채 3년)	원·달러 환율
2004.04 (+4.03)	533.36 (+4.80)	2.63% (-0.02)	1084.40원 (-3.60)

中企중앙회 민간대사 7개국 추가 위촉

중소기업중앙회가 27일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민간대사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2013년 해외민간대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미얀마와 나이지리아, 독일, 카타르, 캄보디아, 파나마 및 중국 심양 등 7개국에 대해 해외민간대사를 추가로 위촉했다. 해외민간대사는 해외진출에 성공한 중소기업인이 위촉됐으며 후발 기업인에게 무료자문을 제공한다.

해외민간대사의 자문을 필요로 하는 업체는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상담센터나 국제통상실(02-2124-3221~4)을 통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전남신용보증재단 '손해금율' 5% 인하

전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계연)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서민의 상환부담을 줄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오는 3월 1일부터 '손해금율'을 현 연17%에서 전국 보증기관 최저 수준인 연 12%로 인하한다.

손해금율이란 보증 이용기업이 부도 등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재단이 기업을 대신해 은행에 갚아준 것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현 전국신용보증재단의 평균 손해금율은 15%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14~16% 수준이다.

또한 전남신보는 제도개선을 통한 실질적인 서민고통 경감을 위해 다각적 지원활동에 나선다. 특히 부실채무자의 상환의욕을 높이기 위해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특별채무 감면캠페인을 실시한다. 이 기간에 채무을 상환한다면 주채무자는 5%, 연대보증은 3%의 손해금율을 적용받아 채무를 쉽게 변제 할 수 있다.

이와함께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보증채무에 대한 감면 폭을 확대해 본인 부담액을 상환했을 경우 손해금을 감면하거나 신용관리정보를 해제해 주는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